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가뭄 대응에 총력

윤혜진 기자 | 승인 2026.08.14 14:10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대책 마련 추진

[국제저널 = 경북 윤혜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이윤철)가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단발성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용수 확보 및 민원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가뭄 대응에 총력©국제저널

지난 10일에 김재욱 칠곡군수와 함께 칠곡군 지천면 지천저수지, 가산면 봉학저수지 등 관내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방문하여 수위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 용수 확보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합동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어,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저

수지 인근 농지에 살수차 동원 등의 긴급 급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칠곡지사 관내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0% 수준에 불과해 평년 대비 50%나 급감한 실정이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영농 차질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윤철 칠곡지사장은 “칠곡군과 대구광역시 북구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향후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용수 절약 홍보와 함께 가뭄대책상황실 가동 체계를 운영중에 있다.



윤혜진 기자 ijj@ijj.co.kr